

IFEZ 스마트시티·스타트업 홍보 성과 '톡톡'

인천경제청-인천시 'WSCE 2022' 스마트시티 도시분야 어워즈 수상 130억 수출 상호협력체결 등 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2)'의 '시티' 부문에서 인천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도시 분야 어워즈를 수상했다.

이번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매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로 올해는 "모두가 연결되는 디지털 세상(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이 주제였다. 인천경제청 등은 △국가공모 존(Zone) △스타트업 존 △리빙랩 존 △프리젠테이션 존 등으로 인천형 스마트시티를 구성, 인천경제청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육성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솔루션·제품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번 인천관에 함께 참여하고 인천스타트업에서 육성 중인 스타트업 네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2)'의 '시티' 부문에서 인천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도시 분야 어워즈를 수상했다. (사진=인천경제청)

스택(주)는 본 행사를 통해 몽골 인포매틱사(Informatic LLC)와 함께 총 사업 규모 1000만 달러(약 130억원)의 스마트 조명 솔루션 및 자동화 제어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인천TP·신한금융그룹과 셀트리온·구글 등이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시티, 바이오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행사 등 국내외 엑스포를 통해 스타트업들의 혁신서비스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국토부 2022년 혁신기술 발굴 사업에 선정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도심배출(라스트 딜리버리) 리빙랩에 대

한 시연도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인천스타트업파크 1층에 설치돼 내년 4월까지 시민들과 함께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송도 내 3곳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인천관에 들러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시연과 스타트업 기술을 관람했다. 안중삼 기자

중구 미단시티 등 도시개발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속 추진 특단대책 마련 요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중구 미단시티(골든테라스시티), 용유노을빛 공원과 검단신도시 홍보관, 3-1택지공구 등 위원회 소관 도시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했다.

미단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미단시티·용유노을빛 공원 조성 사업 등 중구 지역과 관련된 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사업의 정상화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 자리에는 중구청장도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

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미단시티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조 975억 원을 들여 중구 운북동 1283번지 일원에 특급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시설 등을 겸비한 복합 리조트로 개발하려 했으나 지난 2017년 9월 착공을 시작해서 2020년 2월에 공사가 중단돼 정확한 공사 재개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공정률은 24.5%에 그치고 있어 ih(인천도시공사)는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도시마케팅 수립에 따른 매각계획을 수립중이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 사업은 사업비 4816억원, 용유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천도시공사(ih) 소유토지를 활용한 복합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해 5월 시의회

로부터 신규 사업 동의안 의결 후 내년 하반기에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일 계속된 현장방문 당일 오후에는 검단신도시 홍보관을 방문해 검단신도시사업 단장으로부터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 받고 공사 중인 3-1택지공구를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의정을 이어갔다.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은 인천시, ih(50%), LH(50%)가 참여·진행하고 있고 오는 2023년을 목표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몇 가지를 당부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

업체 및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암(岩) 발파 공사 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계양천, 매천의 악취 개선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으며 특히 김명주 의원은 검단신도시 LH 사업 구역 내 물류단지(3개소)와 관련해 주거환경·학습권·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임관단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북상중인 제11호 태풍'힌남노'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정비해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시스템을 정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안중삼 기자

안테나

'120미추홀콜센터' 추석 연휴 특별운영

인천시가 120미추홀콜센터 특별운영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인천시는 8~12일까지 상담사 149명을 투입해 교통정보·응급의료·전통시장·문화행사 외에 코로나19 관련 문의와 인천가족공원 등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응급의료상황, 쓰레기 수거, 상수도 단수와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와 관계기관을 신속하게 연결해 민원요청 즉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윤정 시 시민봉사과장은 "추석 연휴기간 콜센터를 특별 운영해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에 개소한 120미추홀콜센터는 각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인천의 시·구정과 상수도에 대한 민원사항은 물론 생활불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초등생 대상 생존수영 특강 실시



인천시는 서부여성회관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초등학생 20여명이 참여해 회기 당 3일씩 총 2회기에 걸쳐 물놀이 및 수상안전사고 시 생존에 꼭 필요한 인공호흡법, 구명조끼 착용법, 물에 뜨기 및 이동하기 등으로 진행됐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 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향후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 인기

'마음으로'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다. 총 25종의 다양한 마음건강 검사와 자가 회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종합심리검사와 심리 상담을 연계해 상시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본다.

특히 25종 마음건강 검사는 검사방법 등이 생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해 △우울·불안할 때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잠을 잘 못 잘 때 △산전 후 감정변화가 심할 때 등 대표적 심리적 상황에 따른 '상황별 검사'와 청소년·성인·노인·임산부로 분류한 '연령별 검사'를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시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심리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 역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고위험 비율은 63.5%로 전년(40.1%) 대비 58.4% 증가했으며 우울 고위험 비율 또한 전년(18.1%) 대비 100% 증가한 36.2%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마음으로'를 방문한 이용자는 5만3000명(평균 130명)으로 많은 시민이 마음건강검사·회복프로그램·정신재활 콘텐츠 등을 이용해 심리적 지지를 받았다. 안중삼 기자

인천보훈지청, 추석 맞아 보훈가족 위문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1일, 추석을 맞아 지역 고령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2 가구를 방문했다.

이제복 지청장은 이날 오후 90세를 맞이하신 김○하 참전유공자 어르신과 이○철 어르신을 찾아뵙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함을 담아 명절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을 전달받은 김○하 어르신은 "건강이 좋지 못해 외출이 어려워 많이 외로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위로해 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겨 지역에 소외받는 국가유공자가 없도록 일류 보훈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안중삼 기자

추석연휴 대비 12일 하루 특별반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2일을 추석연휴 대비 특별반입일로 지정하고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

업장폐기물 등 기존 평일과 동일하다.

손경희 공사 반입부장은 "추석 연휴가 9~12일까지 총 4일인 점을 감안해 연휴 중 발생한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수해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난 광복절 연휴 3일과 20일에 도 특별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안중삼 기자

도시재창조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서구 상생마을·강화 남산마을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는 2일 국토교통부·강원도·충청권이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관하는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간혁신부분-상생마을(서구) 우수상(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상), 경제활력부분-남산마을(강화군) 우수상(한국도지주택공사 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간혁신부분-상생마을(서구) 우수상(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상), 경제활력부분-남산마을(강화군) 우수상(한국도지주택공사 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5일, 인천 서구청에서 강범석(오른쪽 첫번째) 서구청장과 SK인천석유화학 홍보표 경영혁신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열라이언스 '결식 아동 돕기 도시락 지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진=SK석유화학)

결식 아동 위한 행복도시락 기금 전달

SK인천석유화학, 가좌1동 등 120명에 5천만원 상당 도시락

SK인천석유화학은 5일, 인천 서구청에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SK인천석유화학 홍보표 경영혁신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열라이언스 '결식 아동 돕기 도시락 지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올해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과 석남1·2동, 가좌1동 지역의 결식 우리 아동 120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지원한다.

행복 열라이언스 '결식 아동 돕기 도시락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위험이 있는 지역의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도시락 제조 및 배달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다사랑 행복 도시락' 등 지역의 사회

적 기업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 홍보표 경영혁신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도시락 지원이 지역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이웃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올해 5000만원 규모 지원을 포함해 인천 지역의 결식 우리 아동들에게 5년 동안 누적 2억600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지원하며 '결식 제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지속 노력하고 있다.

안중삼 기자